

# 무주, 내년도 국비 확보 총력

### 황인홍 군수, 안호영 국회의원 만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요청



무주군이 국가에 산안 심의를 앞두고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에 혼신을 다하고 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지난 21일 국회 안호영 의원의 침을 찾아 <무주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무주읍~부남면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필요한 국비지원 증액을 요청했다.

<무주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주민복지서비스 강화를 목적으로 공공임대주택사업 등 기초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경관 개선과 지역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날 황 군수는 무주읍 소재지를 중심으로 배후마을을 연계하는 거점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2023년까지 단계별 사업 추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무주군은 현재 <무주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기본계획 승인 완료를 앞두고 있으며 국비 168억 원을 포함해 총 2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무주읍~부남면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급경사, 급커브 등의 불량 선형을 개선하고 부남면 경관도로를 개설해 마실길(벼룻길)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황 군수는 "낙후지역 개선과 방문객 유입, 주민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주읍과 부남면에 있는 우회도로가 반드시 개설돼야 한다"라며 필요 국비 70억 원 중 2020년도에 투입해야 하는 사업비 11억 원을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안호영 국회의원은 무주군 지역의 현실과 사업추진의 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 무주가 지금보다 발전하고 주민 삶의 질 또한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황인홍 군수는 이주영 국회 부의장

실에도 들러 <구천 노후 정수장 개량사업>추진에 필요한 국비 21억 원 중 18억 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해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구천 노후 정수장 개량사업>은 무주군 최대 관광지인 구천동 일대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구천동정수장(1982년 건설)의 노후된 시설을 개량하는 것으로, 황 군수는 "연간 25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을 수용하는 지역이라 물 수요는 계속 하는데 비해 시설은 노후 돼 안전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2021년까지 추진되는 <구천 노후 정수장 개량사업>의 총 사업비는 70억 원으로 49억 원은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추진된다.

황인홍 군수는 "열악한 재정여건을 딛고 무주다운 무주, 행복한 군민을 실현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다"라며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실행력을 높여 무주군 현안과 주민 숙원을 해결할 수 있는 국가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제1회 무주군 일자리 만남의 날 행사가 22일 무주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됐다.

## 미래의 행복 누구나 잡(JOB)아요!

### 제1회 무주군 일자리 만남의 날 호응

제1회 무주군 일자리 만남의 날 행사가 22일 무주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무주군로컬잡센터에서 주관하고 무주군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전주기전대학이 협조한 가운데 진행된 것으로 기념식과 구인·구직자 만남의 자리가 이어졌다.

기념식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유송열 무주군의회 의장, 황의탁 도의원을 비롯한 의원들과 전주고 용노동지청 정영상 지청장, 전주기전대학 여영규 부총장 등 내빈들과 참여 기업과 기관, 구직자 등 5백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황인홍 군수는 "사람이 필요한 기업과 기관들이 함께 한 만큼 좋은 여건이고 취업을 원하는 분들이 찾아주시는 만큼 좋은 기회"라며 "기업은 훌륭한 인재를 구하고 구직자는 만족스런 직장을 구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

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군에서도 취업과 인력난 해소를 위해 더 노력하고 더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무주군에 따르면 이날 참여 기업 및 기관은 총 30곳으로 풀무원다, (주)무주덕유산리조트와 나뭇리조트, 무주덕유산반딧불이농업조합법인 등 16개 업체가 참여해 현장에서 직접 취업상담과 면접을 진행했으며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전주고용지원센터, 여성일자리센터 등 14개 기관들이 참여해 창업컨설팅과 채용, 정부 고용지원 사업 정보들을 제공했다.

무주읍에 거주하는 김 모 씨(38)는 "일은 해야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하고 찾아야할지 막막했다"라며 "관내 기업, 기관들에 대한 채용정보를 한 자리에서 보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유익했다"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지역 매아리

## 진안 청소년수련관 동아리 '따봉' 청소년자원봉사대회 도지사 표창

진안군 청소년수련관(관장 한호임) 소속 청소년 자원봉사동아리인 '따봉'이 지난 19일 전주 시민의 거리 행사장에서 열린 2019 전라북도청소년자원봉사대회 '두불페스타' 시상식에서 전라북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자원봉사동아리 '따봉'은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중학생들이 모인 동아리로 마을을 찾아가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매월 2~3회 평촌·마조 등 마을로 찾아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족욕, 마사지, 한글교실 등의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 노후 된 때문에 페인팅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환경개선에 일조하는 등 나눔을 실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날 대회에서 진안군청소년수련관은 단체부문에서 전라북도지사 표창, 개인 부문에서 박소은 양이 교육감 표창을 수상하였고, 지도자 부문에서도 청소년수련관 심해옥 선생님이 전라북도지사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김요섭 사회복지과장은 "지역 청소년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재능을 나누고 배려를 실천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더불어 사는 소중한 가치를 배우고 실천하는 청소년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점검회의

장수군(군수 장영수)은 2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빈틈없는 재난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관계자 최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무진장소방서, 제7733부대, 한국전력 등 5개 유관기관과 6개 협업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오는 28일부터 5일간 실시되는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성공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실질적인 훈련이 되기 위해 현장훈련과 토론훈련 시나리오 및 기관별 조치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안전한국훈련은 오는 28일부터 5일간 전 국민적 재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재난취약시설 등의 대피훈련과 안전문화실천운동 및 교육을 진행한다.

특히, 오는 31일 한누리전당에서 실시되는 현장훈련은 지진·건물 붕괴·화재로 이어지는 복합재난을 가상해 진행되며 군청 및 유관기관·단체 등 11개 기관을 비롯한 고가골절차, 진화차, 드론 등 20여대의 장비와 기기가 동원될 예정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군, 동부권 식품산업 발전방안 찾다

### 홍삼한방클러스터 토론회

진안군은 22일 산악초타운에서 전북인산농협, 식품기업, 홍삼연구소 등 유관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부권 식품클러스터사업인 홍삼한방식품클러스터 토론회를 개최했다.

동부권 식품클러스터사업은 동부권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특화품목을 선정하여 생산·가공·체험관광까지 식품 생산·

공급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와 고용창출을 통해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진안군은 홍삼·한방을 특화품목으로 정하고 2011년부터 홍삼·한방 생산기반구축, 산업화 및 마케팅, 관광 활성화 사업 등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1·2단계 성과와 개선사항을 되짚어 보고, 2021년도부터 시작되는 3단계 추진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홍삼한방

클러스터사업을 신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또한 내년 상반기 3단계 추진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김명기 전략산업과장은 "1·2단계 동부권식품클러스터사업을 통해 낙후된 우리 지역의 성장기초를 다진 만큼 3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북도와 군, 사업단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 기능올림픽 전북 동우회, 장수 산서면서 기능봉사활동

기능올림픽 전라북도 동우회(회장 서갑석)는 22일 장수군 산서면 학산리에서 기능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활동은 총 60세대 12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구암, 압곡, 용전마을을 대상으로 사전답사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확인하고 농기계수리, 경로당 도배 및 장판 교체, 방충망설치, 싱크대보수, 페인트도색, 이·미용서비스 등 농촌마을에

기능봉사활동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전라북도 기능올림픽 동우회가 33회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이날 봉사활동에 사회 각 분야 전문기능인으로 최고대우를 받고 있는 동우회원 45명을 비롯해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 한국폴리텍김제대학, 전주비전대학교, LG전자서비스센터, 한국농수산대학교, 현대자동차

효자서부점, 전북미용사협회, 백프로스킨케어 등 8개 협력업체가 참여했다.

기능올림픽 전북 동우회는 1971년 기능대회 메달 입상자들로 창설된 단체로서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전북 출신의 기능인들이 결성한 단체이며 1987년 완주 용진면을 시작으로 도내 진안, 순창, 장수 등 산간·벽지마을과 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매년 1~2회 꾸준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 아토피 안심기관 자연숲 힐링체험 운영

진안군은 22일 관내 아토피·천식 안심기관 어린이집 아동 70여명을 대상으로 자연숲 힐링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진안고원 치유숲에서 진행된 자연숲 힐링캠프는 '굿바이, 아토피! 내 친구 건이, 강이와 함께 하는 체험활동'을 주제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자연숲에서 걷기와 미술, 건강퀴즈, 영양강당 빗기 등 창의적인 오감 자극 놀이체험 등이 진행됐다.

특히 아토피 예방관리법에 대한 손씻기와 보습제 바르기 체험으로 알레르기질환 관리에 대한 인지도도 높였다.

군 관계자는 "진안군 아토피·천식 안심기관에 총 27개소의 어린이집 및 초등학교가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학교와 보건소가 연계된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와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